

02

행복한 군포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
‘군포시민햇빛발전소’

04

군포 새소식

월평균 85건 민원 해결
바로풀센터 운영 100일

10

군포 토퍼뷰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양궁 남자 초등부 4관왕 장준혁

군포시와 SNS로 친구맺기

페이스북 facebook.com/gunpocity

블로그 blog.naver.com/o2gunpo

트위터 twitter.com/gunpocity

<군포소식> 정기구독 신청(무료)

군포시청 홍보실 031-390-0663



한나라군포

책·텃밭·행복·청렴도시 군포

책나라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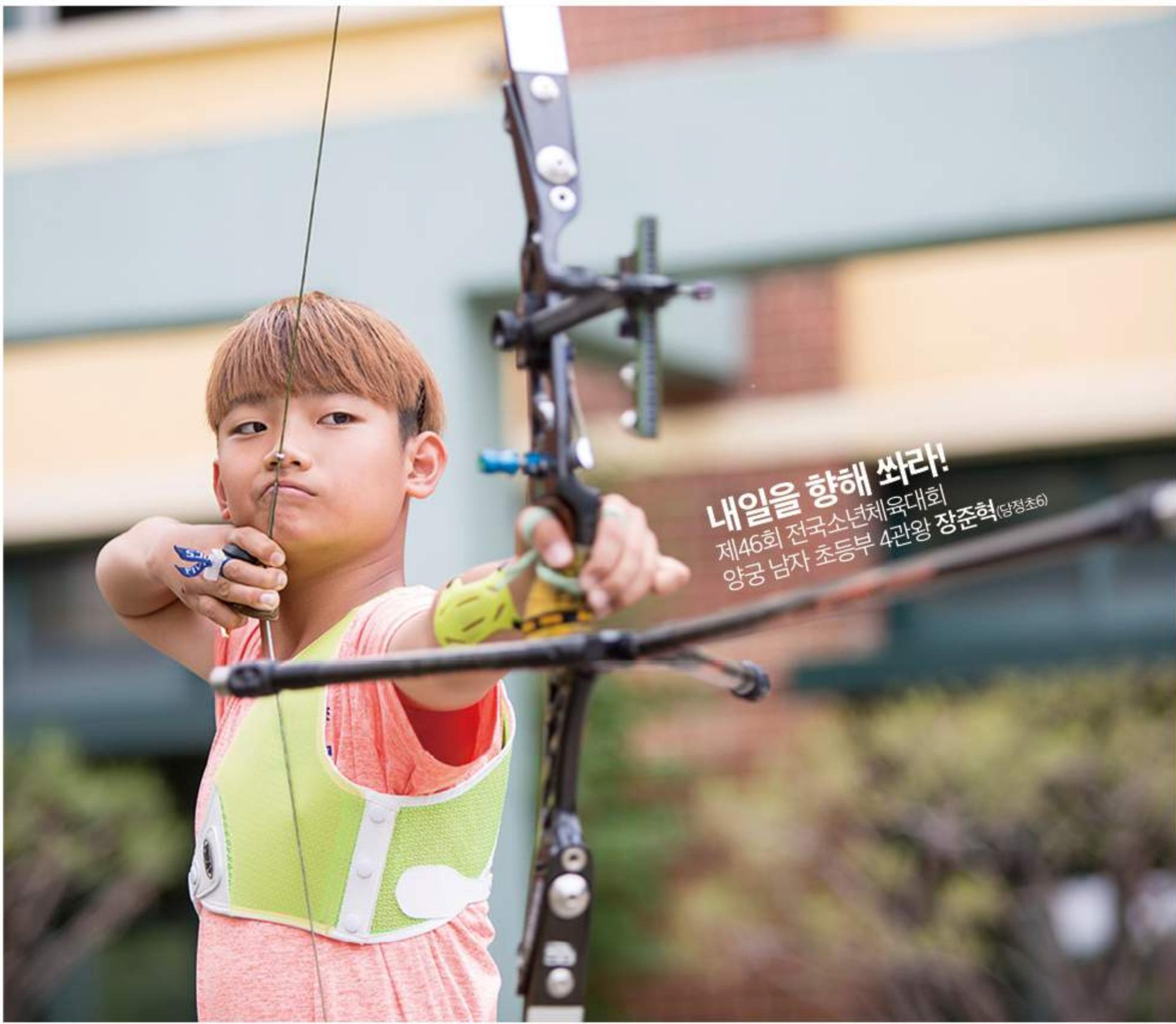
군포소식

GUNPO MONTHLY MAGAZINE

07

2017 JUL
제 360 호

내일을 향해 쏘라!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양궁 남자 초등부 4관왕 장준혁(당정초6)



군포시청이 발행한 <군포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삽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 '군포시민햇빛발전소'



군포, 에너지를 생산하는 해를 품다

재해위험이 큰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석탄화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지속가능 에너지원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사업이 군포에서 추진되고 있다.

군포시민햇빛발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군포시의회 에너지연구모임, 군포YMCA가 공동 주관해 지난 5월부터 전개 중인 '군포시민햇빛발전소' 1호 건립 사업이 그것이다.

햇빛발전 추진위 등에 따르면 시간당 30.15KW를 생산 가능한 군포시민햇빛발전소 1기 건설에는 6천760만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30%는 경기도, 20%는 군포시가 지원하는데 나머지 50%를 조합원 확보 등 시민사회에서 마련한다는 것이 추진위의 계획이다.

경기도의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군포가 에너지 자립 도시로 나아가는 첫발을 뗀 것이기에 의미가 무척 크다.

특히 군포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이 완료돼 태양광 발전이 시작되면 연간 16.3t의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 또는 화석에너지 8.1TOE(석유환산톤)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돼 이번 사업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추진위는 "군포시민햇빛발전소를 하루 최소 3.5시간씩 가동하면, 연간 3만8천 516KW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발전수의 중 60%는 새로운 햇빛발전소 건립에, 40%는 시민 대상 에너지 교육과 발전소 운영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햇빛발전소 1호기

추진위는 올해 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안양 YWCA 건물 옥상에 시간당 25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경험이 있는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의 도움이 무척 컸다.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시민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현재 더 많은 시민과 함께 군포의 첫 번째 햇빛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조합원 및 출자자를 모집 중이다. 추진위는 "최소 1만원만 투자하면, 미세먼지 저감과 지속가능 에너지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며 "햇빛 품은 군포시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햇빛발전소 홍보와 참여 권유 활동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추진위는 지난 6월 22일 군포2동 휴먼시아2단지 내 '느티나무공부방'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햇빛발전소 설명회 및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추진위는 참여자들에게 원자력 발전의 위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를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사업의 당위성을 알렸다.

군포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건립에 참여하기 원하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시민들은 군포YMCA(395-8614)나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469-903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66

군포시의 햇빛발전소 건립안이 최근 경기도의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군포시민햇빛발전소 1호기의 건립추진이 확정됐다.
 당동청소년문화의집 옥상에 세워질 군포시민햇빛발전소는 에너지자립 향상은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자 혁신적인 투자이다.

99



'당동청소년문화의집' 옥상 태양광 이용

사업비가 순조롭게 마련되면 군포시민햇빛발전소는 당동청소년문화의집(군포시 당산로 76) 옥상에 건립될 예정이다. 바닥 면적이 360m²(약 109평)인 당동청소년문화의집 옥상은 현재 비어있어 활용도가 높고, 햇빛발전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시는 이곳이 시민햇빛발전소가 건립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물 안전진단을 시행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시와 추진위는 여러 곳의 사업 대상지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군포시의회와 산본도서관, 군포시민체육광장 등의 옥상 유휴공간이 사업 대상으로 검토됐지만 구조물 안전진단과 주변 상황 분석을 거쳐 사업 부지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애초에 100kw 이상 생산이 가능한 군포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계획했지만, 장소 및 여러 조건을 감안해 계획시설 규모를 축소한 후 당동청소년문화의집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건립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시설 규모보다는 민·관이 협력해 장소를 선정하고, 시민이 주도해 군포시 제1호 시민햇빛발전소를 건립한다는 과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 관계자는 "시민햇빛발전소에서 연간 9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이 수익금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주민 에너지 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안다"며 "햇빛발전이 미세먼지 저감 도시, 지속가능발전 도시 군포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포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 시민햇빛발전소란?

원자력과 화석연료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민이 전력생산자이자 주주로 나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한 뒤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나누거나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새로운 형태의 환경운동이다.

- 사업장소 당동청소년문화의집 옥상
- 사업규모 태양광 30.15kWh
- 사업내용
 - 군포시민햇빛발전소 1호기를 건립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복원
 - 시민햇빛발전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에너지 자립도시 군포 만들기



전화 한 대로 월평균 85건 민원 해결

군포, 바로 콜센터 운영 100일 '시민 만족'



군포시가 최근 3개월여 동안 전화 한 대로 월 평균 85건의 생활불편 민원을 해결했다.

시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생활불편 바로 콜센터(031-390-0014)'를 운영해 총 255건, 월평균 85건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 시민 삶의 질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밝혔다.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 도로와 인도 파손, 버스 정보 시스템 고장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낀 시민이 민원 접수 담당 부서나 관련 전화번호를 정확히 몰라도 편히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한 결과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생활불편 바로 콜센터' 운영으로 민원인들이 신고 부서를 찾는 노력과 불편 사항을 여러

번 설명하는 번거로움이 감소한 만큼 민원 처리는 더욱 빨라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의재 자치행정과장은 "민원 서비스 강화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지난 100일 동안 실감했다"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생활불편이 예방 및 신속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활불편 바로 콜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각종 회의에서 홍보를 진행하며,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안내 전단 비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자치행정과 390-0018

군포가 문재인 정부에 시민 소리 전달합니다

7월 12일까지 시청 민원실에 '국민의 소리 접수창구' 운영

"군포시가 문재인 정부에 시민의 바람,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군포시가 지난 6월 5일 시청 민원실에 '국민의 소리 접수창구'를 개설했다.

군포시민을 바롯한 많은 국민이 새 정부에 다양한 민원과 제안, 생생한 목소리를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돋기 위한 접수창구는 7월 12일 까지 운영된다.

시는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국민의 소리 접수 창구를 운영, 취합된 제안서를 문재인 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조남 기획감사실장은 "제안 등을 제출하는 분

들에게 접수증을 배부하고,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서를 취합·제출하는 것과는 별도로 인수위 활동 종료 시까지 사본을 보관해 제안서 누락에 대비하려 한다"며 "시가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민의 소리 접수창구 운영을 앞두고 2일 근무 직원 교육을 시행,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에 설치될 국민의 소리 접수창구 이용 방법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시 기획감사실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획감사실 390-0052

한 눈에
보는

GUNPO



탄소 발생 줄이고 보상받으세요

군포시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을 절감하면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에 따라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보상하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대폭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6월부터 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페이스북, 블로그) 계정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는 동시에 각종 회의에서 탄소포인트제의 필요성과 참여 혜택을 널리 알리고 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희망자는 인터넷(www.cpoint.or.kr) 또는 팩스(390-0232)로 신청하거나 군포시청 5층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환경과 390-0988

2천500명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65세 이상 노인 폐렴·뇌수막염 등 예방

군포시가 올해 2천500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시민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 중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에 감염되면 사망률이 60~80%에 이르기에 예방사업을 통해 시민 건강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는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에서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연중 시행하는데, 사전 예약이나 신청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하면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시에 의하면 올해 무료 접종대상자는 2천484명으로 최근까지 904명(43.1%)이 백신을 접종받았다.

보건행정과 390-8999

'군포 1만일의 기록' 제작

군포시가 28년간 발전해온 도시의 역사서이자 행정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했다.

시는 지난 6월 19일 군포가 시(市)로 승격한 1989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도시 발전사를 요약·정리한 '군포 10,000일의 기록'을 시청 전 부서 및 도서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비치한다고 밝혔다.

'군포 10,000일의 기록'은 사진으로 보는 군포, 일 반현황, 주요 정책 추진 현황, 시의회, 부록의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이나 '군포 10,000일의 기록'을 구하기 원하는 이들은 시 기획감사실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획감사실 390-0051

주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군포 주민참여예산제

66

지난 6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진행됐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더욱 높이기 위해 열린 예산학교에는 군포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 및 시민, 동 주민센터 업무담당자 등 총 205명의 관계자가 모였다.

시는 이날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참여 방법, 운영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시민들이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전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세금이 더 좋은 곳, 필요한 곳에 쓰이는 데 기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99



한 눈에 보는 군포 주민참여예산제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정

월별	내용	주요 내용	예정일
2월	연간 운영계획 공고	시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언론 보도	2월
5월	대상사업 접수	대상사업 접수(5.1~6.30)	5월~6월
	예산학교 운영	시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언론 보도 찾아가는 예산학교(설명회) 운영 찾아가는 주민의견 수렴	6월
6월	지역회원 개최	분과위원회 개최	5월~6월
	전체위원회 개최	2016년 사업 결과보고 2017년 운영계획 설명	6월
	분과위원회 개최	대상사업 분과위원회 심의	5월~6월
7월	지역회의 개최	대상사업 우선순위 결정	7월
9월	분과위원회 개최	대상사업 분과위원회 토론	9월
10월	전체 위원회 개최	대상사업 심사	10월 13일
	협의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확정	10월 27일
11월	예산안 의회제출	예산안 의회제출	11월

주민참여 예산 참여방법 및 범위

1. 온·오프라인 주민의견 연중 수렴

- 6월 30일까지 접수건 : 2018년도 사업으로 반영

- 7월 1일 이후 접수건 : 2019년도 사업으로 반영

※ 접수기관 : 기획감사실 및 시 홈페이지(주민참여방) 제출

의견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주민참여방) 제출

2. 주민참여예산 반영 결과

(단위: 건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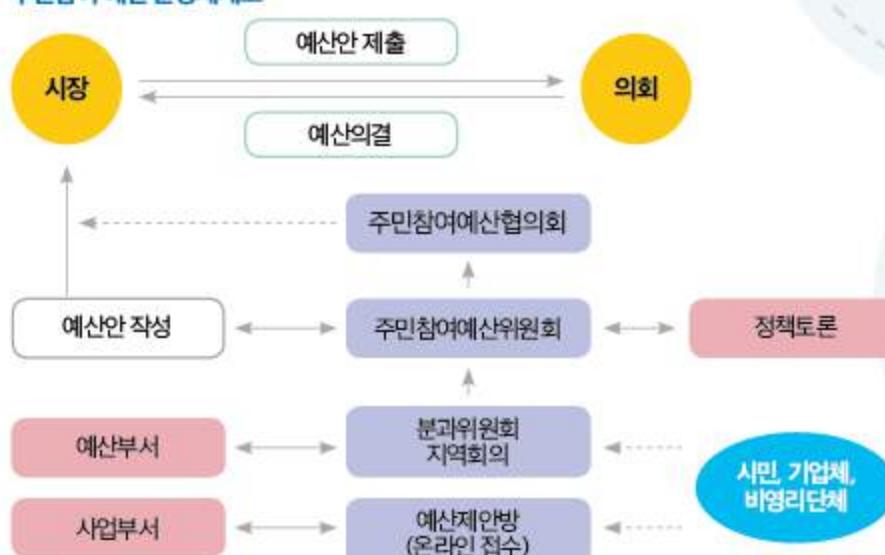
구분	접수 현황	예산반영 현황	비고(예산액)
2015년	96/7,325	45/1,816	386,954
2016년	108/5,239	44/1,578	417,168
2017년	193/9,768	69/3,008	444,770

3. 주민참여 예산반영 결과

- 주민참여 예산액 : 일반회계 총 예산의 1% 범위 내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경비 제외한 사업예산

주민참여 예산 운영체계도



군포시 재정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그 외	총계
2015년	386,954	232,256	619,213
2016년	417,168	234,203	651,374
2017년	444,770	172,487	617,259

기획감사실 390-0056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34차 정례회 개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34차 정례회의가 군포시의회(의장 이석진) 주관으로 지난 5월 23일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상호 정보교류 및 지방자치 발전 등을 목적으로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두 달에 한 번 씩 개최하는 정례회이다. 이번 정례회에선 경기도 시군

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 규정 일부 개정(안)의 건과 대선 이후 지역사회 분위기 쇄신 및 지역화합과 관련한 사항 등 현안사항 논의와 함께 군포시의회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영상'을 상영했다.

군포시의회는 작지만 알차고 자연환경도 아름다운 도시인 군포시를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축제 및 현안사항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들의 많은 관심과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오찬 후 이어진 제6회 경기도사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는 군포시 홍경호 의원과 이희재 의원을 비롯한 10개분야 58명의 의원이 각 분야의 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선 지역 내 대기업인 (주)농심 공장(군포1동)을 방문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의 역할을 설명 들었다.

[인터뷰]

외롭고 쓸쓸한 노인이 없는 군포시를 만듭니다

<군포시 훌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장경민 의원

Q. 조례 발의와 제정 배경은

A. 현대에는 가파른 노인 인구 증가와 훌로 사는 노인의 증가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 발생이 예상됩니다. 각종 노인 문제 방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훌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Q.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A. 가족으로부터 고립돼 외롭게 살거나 고독하게 훌로 사망하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명 '고독사' 위험 노인의 정서 안정을 위해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과 말벗 서비스, 안전 확인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과 개인별 서비스 계획수립,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 발굴·연계 활성화, 고독사 위험자 사망 시 무연고임이 확인됐을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명시했습니다.

Q. 우리에게 '노인 문제'는 무엇인가

A. 우리는 모두 '예비 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인을 위한 정책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훌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평소에 이웃끼리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등 주민 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장려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공부문 지원과 복지전달 체계 구축 시 민간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 단신

'시의회 에너지 연구모임'
지속가능 햇빛발전 홍보



군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군포시의회 에너지 연구모임'(대표 성복임 의원)은 5월 23일 효자동공원(군포1동)에서 열린 '당동마을축제'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인 햇빛발전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활동은 연구단체 대표위원인 성복임 의원과 이건행 군포시의회 부의장이 주관해 햇빛발전 군포시 1호 설치사업을 포함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생산노력의 필요성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이었다.

단순 홍보뿐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현장간담회 형식으로 질의와 토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화로 미세먼지나 기후변화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시민이 앞장서는 것이 해답이라는 점을 알렸다.

군포시 소상공인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원이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의장을 마련했다. 조례 제정을 앞두고 의회가 별도 간담회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5월 24일 군포시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군포시 소상공인 건의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회'에는 이건행 부의장 등 소상공인을 포함해 20여 명이 참석했다.

의견수렴회에서는 성 의원이 준비한 조례안에 대한 평가 외에도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전해졌다. 참석자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사람을 쓰는 문제라 지적하며 중소기업들처럼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의회사무과 390-8713

휴식과 여유를 만나는 곳

전 철 1호선 당정역

글 편집실 / 사진 주효상

당정
井驛
驛
驛

당정역은 군포역과 의왕역 사이의 경부선 전철역으로 군포시 군포1동에 있다.
군포역으로부터 1.6km 지점에 있으며, 2008년 5월 16일에 착공해
2010년 1월 21일 개통과 더불어 영업을 개시했다. 부역명은 '한세대역'이다.
당정역은 이동 불편을 호소하는 인접 지역 주택단지 입주민들과
군포시노인복지관, 학교 등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건설됐다.

당정역을 나오면 바로 당정근린공원(당정동 761번지 일원)을 만날 수 있다.
당정근린공원은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쉼터이자 놀이터이고, 군포의 새로운 명소다.
공원 초입에서는 2016년 8월 국내 30번째로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시원한 인공폭포가 시민을 맞는다.
당정근린공원부터 시작해 안양컨트리클럽을 둘러싸듯 조성된 둘레길에서는 지역 아이들이나
작가들의 글과 그림이 전시된 시민갤러리, 덩굴식물원 등을 즐기며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당정역 이용 승객(1일 기준)

- 승하차 1만6천명

당정역 업체 운행(평일 기준)

- 1호선 254회(상·하행)

출처 :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당정역

(한세대)
Dangjeong Station 堂井驛1.당정근린공원
2.평화의 소녀상

• 주소 군포시당정역로 91

• 노선 경부선

• 문의 031-457-0998

• 인접동 군포1·2동

• 주변 당정근린공원, 군포시노인복지관, 한세대학교

군포 독서농사 순항 '가을잔치 기대'

9월 15일부터 3일간 '2017 책나라군포 독서대전' 개최
윤동주 100주년 기념행사, 헌책장터, 글로벌 작가 만남 등 예정



"독서농사를 함께 지을 출판사나 출판 관련 기업을 찾습니다"

군포시는 7월 7일까지 '2017 책나라군포 독서대전'에서 길거리 책방을 운영할 출판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시가 개최할 대규모 독서문화행사에 동참해 나름의 독서 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질의 도서를 판매할 출판사나 출판 관련 기업이라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다면 학습지 판매나 독서와 상관없는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한 참여 신청은 배제되며, 신청 절차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www.gunpo.go.kr→새소식)를 참조하거나 책읽는정책과에 문의(390-0903)하면 알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독서대전에서도 다양하며 독창적인 문화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산본도서관에서 기념 전시·강연·콘서트를 진행하고, 약을 처방하듯 상담·진단으로 도서를 추천하는 북레시피 닥터 프로그램 등을 기획했다.

시민이 참여해 즐기는 행사는 더 강화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시민 헌책장터를 확대 개설하며, 책 읽기와 퀴즈풀이의 재미가 모두 보장되는 청소년·성인 독서 골든벨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또 시는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국제 문학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한강, 안도현, 공지영, 정유정 등 국내 유수의 작가를 해외에 소개해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바바라 J. 지트워'를 초청해 작가와 만남 시간도 마련하는 등 재미와 문화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기타 더 자세한 행사 정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해서 공개, 독서대전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높인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한편 군포시는 2011년부터 매년 가을에 자체 책 축제를 개최하며 독서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2014년에는 국내 최초의 정부 주도 독서문화 행사인 '제1회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주관한 바 있으며, 이후 자체 책 축제의 수준을 꾸준히 향상해 많은 관람객이 찾는 가을철 대표 문화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책읽는정책과 390-0903

○ 이달의 추천 도서 ○



01 아동 도서

유럽에 사는 내 친구들

글 유영소

출판사 아이세움

부모님을 따라 혹은 공부 때문에 유럽에 사는 아이들이 한국과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아이들의 시각으로, 사진과 그림으로 유럽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한다.



02 청소년 도서

꿈을 요리하는 마법 카페

글 김수영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다큐 감독, 작사가, 번역가 등 직업만 열개가 넘는 꿈쟁이 김수영 작가의 첫 자기계발 동화. 무한한 가능성은 가졌지만 꿈이 가난한 어린이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을 환상적이고 아름답게 구현했다.



03 성인 도서

젊은 날의 책 읽기

글 김경민

출판사 샘앤파커스

오래전 읽었던 책의 글귀 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한다. 이 책은 우리의 인생에 감동, 지혜, 웃음을 선사했던 36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다.

단신뉴스

도서 상호대차서비스 추가기관 알림

- 추가기관 동화나무어린이도서관
- 위치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7:00, 일요일 휴무
- 문의 390-3059

산본도서관 청소년 독서회 추가모집

- 운영기간 7월 14일(금)~12월 8일(금)
매주 금요일 17:00~18:30
- 모집인원 관내 중학생 7명
- 활동장소 산본도서관 2층 작은문화강좌실
- 신청기간 6월 27일(화) 09:00~마감 시까지
- 신청방법 선착순, 도서관 홈페이지 (www.gunpolib.or.kr→문화행사)
- 문의 산본도서관 390-8843

대야도서관 여름방학특강 수강생 모집

- 운영대상 관내 초등 1~6학년
- 모집기간 7월 3일(월) 09:00~7일(금) 18:00
-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www.gunpolib.or.kr→문화행사→대야도서관)
- 추첨발표 7월 11일(화) 15:00
(군포시도서관 홈페이지)
- 수강료 무료(재료비 및 교재비는 수강자 부담)
- 문의 대야도서관 390-8672

부곡도서관 여름방학특강 독서문화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운영대상 군포시민
- 모집기간 7월 11일(화) 10:00~14일(금) 18:00
-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www.gunpolib.or.kr)
선착순 접수
- 명단개시 7월 18일(화) 14:00
(군포시도서관 홈페이지)
- 수강료 무료(재료비 및 교재비는 수강자 부담)
- 문의 부곡도서관 390-4081

2017년 도서관 기반 진로탐색 스토리작가, 인터넷기자 알아보기

- 일시 스토리작가 - 8월 1일(화) 14:00~16:40
인터넷기자 - 8월 10일(목) 14:00~16:40
- 대상 관내 초등 5학년~중학교 3학년
- 인원 30명(선착순 접수)
- 장소 산본도서관 2층 문화강좌실
- 신청 7월 12일(수)~마감 시까지(중복지원 가능)
도서관 홈페이지 (www.gunpolib.or.kr)
문화행사→산본도서관
- 문의 산본도서관 390-8843

방짜유기, 그것을 알고 싶다면 군포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7월 중 착공 예정
내년 초 개관 목표…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지원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조감도

신비한 청동기술이 녹아있는 방짜,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군포를 찾아야 한다.

군포시는 지난 6월 12일 구리와 주석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청동 제품, 방짜의 탄생부터 역사 그리고 활용 방향까지 한 곳에서 알 수 있는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건립 공사를 7월 중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의 전시동, 지상 2층 규모의 공방동으로 구분해 건립될 방짜유기 전수교육관(도마교동 206 일원)은 내년 초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

시에 의하면 전시동에는 전시실, 체험홀, 판매실, 수장고 등이 배치돼 방문객들이 방짜유기를 눈과 손으로 모두 감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 공방동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0호, 놋쇠를 두드려 각종 기물을 만드는 장인 김문의 방짜유기장과 제자들이 실제 방짜유기를 만드는 작업장으로 활용돼 전통문화의 전승·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전수교육관 건립으로 방짜유기를 상설 전시하는 동시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지역문화 환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에 힘을 보태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이 건립 완료되면 공개 행사 등을 통해 시설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사람에게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홍보실 390-0745

7월 GS시네마 ‘다양성 영화’ 무료 상영

환상속의 그대

7월 3일/10일(월)

감독 강진아
장르 드라마
등급 청소년 관람불가
시간 110분

논픽션 다이어리

7월 17일(월)

감독 정윤석
장르 다큐
등급 15세 관람가
시간 93분

뚜르

7월 24일/31일(월)

감독 임정하, 전일우, 박형준, 김양래
장르 다큐
등급 전체 관람가
시간 70분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상상극장 / 문의 : 군포문화재단 390-3071~3

단신뉴스

군포나누미학교 7월 프로그램

- 일시 7월 1일(토)~30일(일)
- 장소 군포시평생학습원
- 대상 군포시민(강좌에 따라 수강대상 제한)
- 내용 ‘리틀화가들의 모임’ 만들기 등 20강좌
- 수강료 무료(재료비 별도)
- 신청 네이버카페 군포나누미학교
<http://cafe.naver.com/gpnanumi>
- 문의 군포문화재단 390-3071~4

창업 미니마켓 & 희망잡(job)기

- 일시 7월 4일(화) 09:30~16:00
- 장소 군포시여성회관 1층 로비
- 내용 수공예 판매 작은장터, 여성 취업상담 등
- 문의 군포시여성회관 390-3080

연극 <만리향>

- 일시 7월 7일(금) 19:30
7월 8일(토) 15:00, 19:30
- 관람시간 100분
- 장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입장연령 8세 이상
- 입장료 일반석(전석) 10,000원
- 문의 군포문화재단 390-3500~2

7080콘서트 <사랑과 평화 & 추기열>

- 일시 7월 15일(토) 19:30
- 관람시간 100분(인터미션 포함)
- 장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출연진 사랑과 평화, 추기열
- 입장연령 8세 이상
- 입장료 일반석(전석) 30,000원
- 문의 군포문화재단 390-3500~2

가족 댄스뮤지컬 <비바초 태권발레>

- 일시 7월 22일(토) 15:00
- 관람시간 65분(인터미션 포함)
- 장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입장연령 36개월 이상
- 입장료 일반석(전석) 5,000원
- 문의 군포문화재단 390-3500~2

‘문화가 있는 날’ 무료 강좌 시 낭송과 함께하는 여행이야기

- 일시 7월 26일(수) 10:00~12:00
- 장소 군포시여성회관 1층 여담도서관
- 내용 배경음악과 시 낭송을 통한 여행의 의미
- 신청 전화, 방문(수시)
- 문의 군포시여성회관 390-3080



당정초등학교 양궁부

지난 5월 27일부터 4일간 충청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5월 28일 홍성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양궁 남자 초등부에서 4관왕이 탄생했는데,

개인종합·단체종합·20m·3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장준혁(당정초6) 군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네 번의 금빛 화살을 멋지게 쏘아 올린 장준혁 군을 만나기 위해 훈련이 한창인 당정초등학교 양궁부를 찾았다.

정리 김은 사진 주효상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구호 아래 개최된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1만6천964명의 초·중학교 선수단이 출전했다. 올해 대회는 5월 27일부터 나흘간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50개 경기장에서 35종목(초등부 19종목, 중등부 35종목)의 열띤 경기가 펼쳐졌다. 양궁 초등부에서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 장준혁 군은 이번 대회에서 4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양궁 시작 2년 만에 눈부신 성적을 거둔 장준혁 군과 안진영 코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4관왕 달성을 축하합니다. 소감이 어떤가요?

장준혁 아직 얼떨떨해요. 사실 대회에 나가면서 한 종목에서라도 금메달을 꼭 따자고 다짐했습니다. 4관왕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고요. 소년체전 참가는 처음이라 많이 긴장됐는데 막상 금메달 네 개와 은메달 한 개를 따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양궁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장준혁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조금 다쳐서 학교 보건실에 간 일이 있어요. 거기서 안진영 코치님을 만났어요. 코치님이 양궁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고 하셔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진영 양궁팀 코치로 부임한 이후 양궁팀 선수를 뽑기 위해 보건실을 자주 갔어요. 아무래도 활동적인 학생들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거기서 준혁이를 처음 만났어요. 양궁선수에게는 팔뚝, 특히 활을 지탱하는 원필이 중요한데 준혁이의 골격이나 체형이 양궁을 하기에 적합해 보여서 권유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양궁이 재밌었나요?

장준혁 양궁이라는 운동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자세부터 하나하나 배웠어요. 원래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서 축구를 열심히 했는데, 양궁을 알게 된 이후에는 양궁이 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특히 과녁 정중앙을 맞출 때의 짜릿한 기분과 성취감이 정말 좋아요.

안진영 5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합에 나갔는데 기대만큼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 아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준혁이 본인은 크게 개의치 않아 하더라고요. 내가 될 실수하고 부족한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꾸준히 연습하면서 점점 실력이 좋아졌습니다. 소년체전을 앞두고 열린 경기도 평가전 때 1차 6등, 2차 3등, 3차 2등, 종합 2등으로 선발된 것만 보더라도 승부욕이 남다른 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꿈이 궁금해요

장준혁 양궁은 하면 할수록 재밌는 운동 같아요. 잘 보이지도 않는 과녁을 향해 한발 한발 화살을 쏘면서 과녁 중앙을 맞추는 일이 신기하기도 하고요. 중·고 등학교에 올라가더라도 양궁을 계속해서 꼭 올림픽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금메달도 따고, 엄마·아빠한테 집도 지어서 선물해주고 싶어요. 우선은 양궁팀 친구들과 사이좋게 훈련하고, 시합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니까 7월 말에 청주에서 열리는 전국초등학교 양궁대회에서도 좋은 결과 얻고 싶어요.

장준혁 학생



안진영 코치



‘군포 담벼락-똑똑’ 꿈의 학교 마을벽화 그리기

담벼락을 캔버스 삼아 꿈과 희망을 그리다

지난 5월 개교식을 시작으로 ‘군포 담벼락-똑똑’ 꿈의 학교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마을벽화 그리기를 통해 마을공동체와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소외되고 낙후된 마을에 꿈과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뜻깊은 현장을 군포소식이 찾았다.

정리 편집실



벽화마을 조성으로 지역사회 명소 만들기

새로운 공교육 형태로 관심을 받는 ‘군포 담벼락-똑똑’ 꿈의 학교(이하 담벼락 꿈의 학교)가 지난 5월 27일 오후 초막골생태공원 교육실에서 개교식을 가졌다.

이날 개교식은 학생, 학부모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담벼락 꿈의 학교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담벼락 꿈의 학교는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꿈과 진로를 탐색하며, 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학교 밖 학교’다. 10명의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6개월 동안 마을벽화 그리기를 통해 마을공동체와의 소통과 화합을 배우는 뜻깊은 수업이 진행된다. 아울러 벽화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해 가는 기회 또한 아이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담벼락 꿈의 학교 이상훈 교장은 “서로 소통하면서 공동체를 알아가는 소중한 만남이 됐으면 한다”며 “협업을 통한 나눔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예술적 감성과 공동체 의식 자라길 기대

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 주관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담벼락 꿈의 학교는 지난 4~5월에 참가신청을 받았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5월 초에 총 38명의 참가자를 선발했다.

선발된 중·고등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2시간씩 모여 마을벽화 그리기를 위한 총 22번의 수업을 진행한다. 7월 초 기준 전체 수업의 약 30%가 시행되며, 벽화마을을 조성할 산본1동과 초막골생



태공원의 ‘마을 스토리 라인 만들기’가 한창 진행 중이다. 담벼락 꿈의 학교는 마을 스토리 라인을 통해 어떤 그림을 그릴지 결정한 뒤 7월 중으로 마을벽화 스케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8~11월까지 채색 및 코팅을 끝마치고, 12월 초 발표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담벼락 꿈의 학교 관계자는 “우범·낙후지역은 물론 곳곳의 멋진 공간을 아름다운 벽화로 장식할 이번 활동으로 군포가 새로운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 할 것”이라며 “아이들의 성취감과 예술적 감성을 고취하고, 특히 밝고 건강한 공동체 의식이 자라나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 010-5327-9892

재궁마을 아이 교복, 함께 마련

‘사랑 더하기 행복 바자’로
성금 145만원 마련
주민자치위원회와
양정초 학부모회 공동 주관



재궁동 주민들이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현실로 만들었다.

지난 6월 8일 재궁공원에서는 재궁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군포양정초등학교 학부모 회가 공동 주관한 ‘사랑 더하기 행복 바자회’가 개최됐다.

이날 바자회는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의 교복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돼 총 145만원의 판매수익이 발생했다.

기증받은 도서나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 양정초 학부모회에서 80만원, 주민센터 바리스타 강좌 수강생들의 협조를 받아 일일 나눔카페를 운영하며 더치커피와 호박식혜 등을 판매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65만원의 수익금 모두를 기탁했기 때문이다.

재궁동은 이 수익금을 지난달 15일 저소득층 자녀 교복 구매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

업을 전개하는 재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

이선주 재궁동장은 “성격도 구성도 다른 모임 회원들이 ‘재궁동 주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이웃돕기에 협력하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고 자랑스럽다”며 “모든 이웃이 함께 행복한 재궁동 만들기를 위해 주민센터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궁동은 바자회 현장에서 재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호박죽을 만들어 판매하며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복지 사업비 확보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또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바자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사업 홍보를 펼쳐 ‘가족이 행복한 재궁마을 만들기’에 기여했다고 재궁동은 설명했다.

재궁동 390-8751

동네방네 복지 행복 전파

군포1동 ‘동네방네 찾아가는 가정방문’ 적재적소 복지 기여

군포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이하 행정복지센터)가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실제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파악, 적기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능동적 복지행정의 모델을 정립하고 있다.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1월부터 ‘동네방네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 사업을 전개 중이다. 군포1동 지역의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24명과 차상위계층 130명을 합해 454명이 방문 상담 대상이다.

이 가운데 257가정을 방문해 6월 중순까지 상담을 마친 행정복지센터는 이불 후원 연계, 쌀과 라면 등 생필품 후원 전달 등 군포시와 동에 기탁된 이웃돕기 후원 물품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1~3월에는 추위나 환절기에 복지 서비스가 더 필요한 독거노인과 고시원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상담을 진행, 복지 행정의 효율을 높였다고 행정복지센터는 설명했다. 김철홍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의 특색 복지사업인 ‘행복나눔바구니’ 사업 등과도 연계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요자 맞춤형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 계절, 가정 특색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음악과 나눔으로 하나 된 금정마을

제3회 마을축제와 사랑 바자회 동시 개최

금정동은 6월 9일 금정제일공원 내 야외무대에서 주민 화합과 나눔을 목적으로 마을 축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메이킹 금정마을 한마음 축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로 구성된 째즈&방송댄스 팀과 생활문화동호회 소속 예술인의 공연 외에 한 국공연예술단 단원들의 신명 나는 무대도 펼쳐졌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군포문화재단의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가 함께 진행돼 설 운도, 김연숙, 헌트 등 초청 가수의 무대도 마련됐다.

한편 금정동새마을부녀회는 행사장에서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해 농산물 및 먹거리 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했다. 이날 판매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후원돼 금정동 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섭 금정동장은 “지역에 소문난 끼와 재능을 가진 주민들이 한 무대에서 어울리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였다”며 “금정동의 주민 화합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지속 발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정동 390-8534

고맙습니다, 책 읽는 군포

편소정 | KBS 울산아나운서

안녕하세요, KBS 울산방송국 아나운서 편소정입니다. 멀리 울산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이 <군포소식>을 찾은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직장은 울산이지만, 저는 군포시의 작은 도서관이 키운 군포시민입니다. 그간 저는 '책 읽는 군포'에 대한 고마움으로, 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빌 게이츠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나를 키운 것은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했다죠? 비록 빌 게이츠처럼 유명인사는 아닙니다만, 사회의 건강한 시민이 된 계기는 저 역시 작은 도서관 덕분입니다.

무척 어려웠던 어린 시절, 군포시가 마련한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덕분에 예술고 문예창작과에 진학했고, 대학교도 문학특기자로 진학할 만큼 책은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정책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산증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도 첫 도서관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지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 앞 복지관에 있던, 그야말로 작은 도서관에서 이집트와 관련된 책을 처음 꺼내 읽고 드넓은 세상을 처음 만났습니다. 집에 있는 책을 가져오면 대출증을 준다는 말에, 읽은 책을 한 아름 가져가 종이로 된 대출증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커다란 시립도서관은 또 한 번 저의 세계를 넓혀주었습니다.

군포의 도서관은 종합학원 하나 다녀보지 않은 제가 좋은 학교로 진학해 훌륭한 교육을 받고, 꿈꾸던 일을 하는데 밀거름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친정집인 군포를 찾습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보다 훨씬 더 멋지고 세련된 군포를 보면 설렙니다. 많은 이들에게 더 큰 가능성, 더 폭넓은 기회를 주는 도시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제는 웃으며 어렵던 시절을 추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직 많은 어려운 학생들이 학생 시절의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책 읽는 군포'가 그 학생들에게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는 큰 자산이 돼 주리라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응원하고, 마음을 다해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포.

충혼탑

이형철 | 산본1동

순국선열 잠든 이곳보다
피묻은 수리산 언덕은
바람 휘저으며 슬픈 소리

반월호수 건너편 물가에 새소리
풀잎은 더위에 자처있는 모습
건조한 슬픔으로 익어 내린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이땅
피 끓는 청춘의 의지로
젊음을 불살랐던 6.25
해마다 흰 꽃은 영령을 지키고 있었네

절규하던 조국의 함성
소원하는 조국의 합창 소리
두툼한 햇살로 피어오른다.

<군포소식>이 시민 원고를 기다립니다

제출방법 이메일 gunpo-city@nate.com, 매월 접수

원고분량 150자 이상 900자 이내(글자 10포인트 기준) 시는 자유

문의 군포시청 홍보실 390-0663

※ 원고가 게재되면 문화상품권(3만원) 지급, 사전 연락 없음

자유 8호차

김효미 | 산본2동

"자리 있으면 앉으세요"
KTX 8호차는 자유석 차량
'어찌면'을 기대하며 힘찬 발걸음

앉을 자유는 있는데
반드시 앉을 수 없음은
자유인이 많아서인지, 상술의 승리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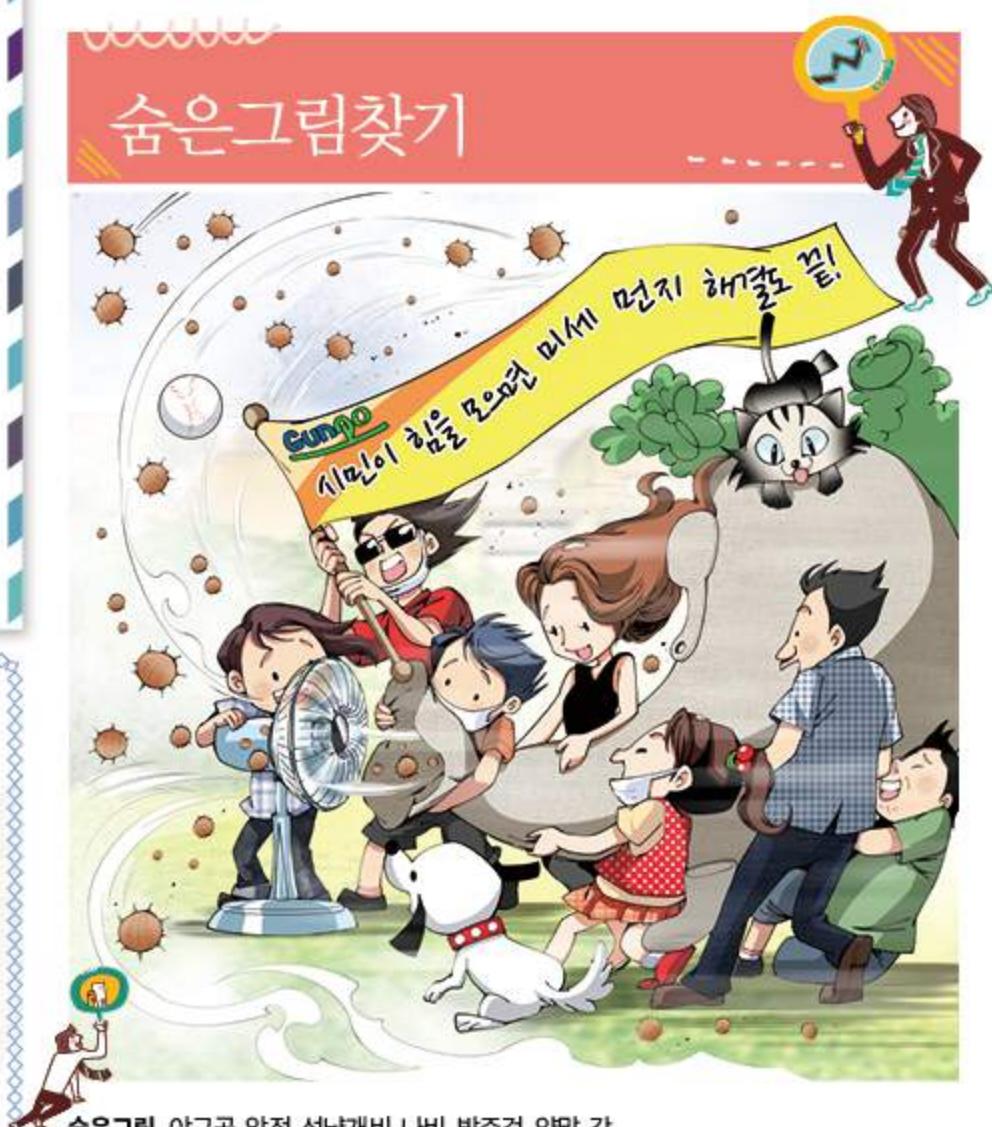
자유는 경쟁인가?
경쟁이 기회인가?
이해보다 순응하는 사람들

저마다 자유를 갈망하는
이곳은 설국열차의 꼬리칸
자유는 넘치나 자유석은 한계

자유로 앉은 사람들 사이사이
자유로 서고 쪼그리고, 기댄 사람들
웃프게 자유로운 이곳은 '자유 8호차'



숨은그림찾기



숨은그림 야구공, 압정, 성냥개비, 나비, 밥주걱, 양말, 감

수수께끼 군포시는 올해부터 'OO참여예산' 사업 접수를 연중 시행한다. ▶ 5면 참조

정답제출 숨은그림과 수수께끼의 정답 표기 후 사진 촬영해 7월 21일까지,

군포시 페이스북(facebook.com/gunpocity)을 방문해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다섯 분을 추첨해(페이스북 공지)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권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등

-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당첨 시 본인 확인 및 상품권 배송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1년 보유 후 파기

동의함
동의 안함

596개 광·제조업체 현황 조사

10인 이상 광·제조업체 대상 15개 항목 실사



군포시는 통계청과 함께 6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한 달여간 지역 내 광·제조업 부문 산업활동을 하는 종사자 10인 이상의 사업체 596개사를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시행한다.

시는 이번에 면접 및 인터넷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역의 광·제조업 부문 사업체 596개(2016년 12월 31일 기준)의 사업체 이름,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과 출하액 등 15개 항목을 확인할 계획이다.

광·제조업 조사 결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산업에 대한 연구·분석자료 등에도 이용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남 기획감사실장은 “매년 시행하는 통계조사이지만 지역경제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 업무이기에 항상 정확한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통계조사가 원활히 이뤄지게 대상업체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 기획감사실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조사 요원 7명을 선발했으며, 조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난 6월 7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통계청 주관으로 시행된 조사 지침 및 사례 교육과 안전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했다.

기획감사실 390-0357

양양군 하계 휴양소(동호해변)

군포시민 이용 지원 안내



기간 7월 7일(금)~8월 20일(일)

장소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해변

이용대상 군포시민

지원내용 - 파라솔, 튜브, 샤워장, 야영장 이용료 50% 감면

- 1가족(4인 기준)당 파라솔 1개, 튜브 2개, 야영장, 샤워장 인원수대로

협조사항 주민등록증 및 공무원증 자참, 기간 준수

이용방법 동호행정봉사실에서 명부 작성 후 50% 감면 이용권을 수령해 각 대여소에서 50% 감면 이용권과 나머지 50% 금액을 지불

* 할인 시설 이외에는 모두 본인 부담 이용, 자매단체인 양양군이 군포시민을 위해 예산 지원

<동호해수욕장 이용요금>

구분	정상금액	할인금액	비고 (1가족당 1일 이용한도)
파라솔	10,000원	5,000원(50%)	1개
튜브	10,000원	5,000원(50%)	2개
샤워장	1,000원~2,000원	500원~1,000원(50%)	인원수
야영장	20,000원	10,000원(50%)	1개
테이블	30,000원	본인 부담	

문의 강원도 양양군청 033-670-2213

군포일자리센터 7월 추천 일자리



gyeonggi.work.go.kr/gunpo/main.do 390-0613

회사명	주소	사업 내용	모집 직종 및 인원	근무시간	임금	전화번호
(주)대성마리프	군포시 공단로 298-24(금정동)	의료기기 및 산업용온계 제작	품질관리 사무원 2명	주5일 08:30~18:00	연봉 2,100만원	070-8706-2790
(주)티에스 종합건설	군포시 사사안골 4길 16(도마교동)	건축, 토목공사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1명	주5일 09:00~17:00	연봉 3,500만원	031-682-2570
경기군포 노인복지센터	군포시 산본로 369번길 19 주몽상가 201호(산본동)	재가센터	사회복지사 1명	주5일 09:00~18:00	월급 140만원	031-391-1170
(주)수호종합개발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22, 청운빌딩 302호(산본동)	승강기 주차장 유지보수	승강기 기사 2명	주5일 08:30~17:30	연봉 2,400만원	031-396-6629
(주)삼화미터텍	군포시 농심로 60번길 14(당정동)	계측기 제조 도매	전자부품 조립원 2명	주5일 08:30~17:30	시급 6,470원	031-455-4114
신성정보통신(주)	군포시 고산로 166, sk벤티움 102동 406호(당정동)	통신건설	전기공사 기술자 1명	주5일 09:00~18:00	연봉 3,300만원	031-341-1766
우진교구산업(주)	군포시 공단로 171(당동)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제작 조달	용접프레스 조작사원 1명	주5일 08:30~17:30	월급 170만원	031-455-1188
(주)유일전주	군포시 농심로 88-16(당정동)	핸드폰 전주금형 제작	전자부품 검시원 2명	주5일 08:30~17:30	시급 6,470원	031-456-2190
(주)아이리스코리아	군포시 공단로 278-19(금정동)	대형마트 등 생활용품 판매	물류관리사 1명	주5일 09:00~18:00	연봉 2,400만원	031-459-5966
한독기술(주)	군포시 당정로 27번길 42(당정동)	전자부품, 플라스틱 제조	경리사무원 1명	주5일 08:30~17:30	연봉 2,300만원	031-452-3731

* 2017년 6월 22일 기준 일자리 정보로 조기 구인 마감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구인구직 정보는 군포일자리센터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아이에겐 건강을 산모에겐 기쁨을!

군포시 보건소 임신·출산 지원

군포시는 보건소를 통해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그 중 임신부 지원 시책 몇 가지를 소개한다.

난임부부 지원 등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소 홈페이지(health.gunpo.go.kr→보건소 사업→임신 출산 지원→건강한 임신)를 참조하거나 보건소 출산장려팀에 문의(390-8915, 8965, 9833)하면 알 수 있다.

공통 조건: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① 산전검사

- 대상: 임산부 및 임신을 준비중인 가임 여성·남성(결혼예정 및 신혼부부)
- 검사비용: 무료(연 1회 지원)
- 검사항목: 혈액검사 8종(B형간염, 간 기능, 신장 기능, 풍진, 혈액형, 빈혈, 매독, 에이즈), 소변검사 2종(당뇨, 단백뇨)

※ 검사결과는 8일 후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산점검사결과 확인 방법' 참조

- 구비서류

- ▶ 임신 준비 중: 신분증(혼인신고 전인 경우 청첩장, 결혼사진, 예식장 계약서 등의 서류 지참)
- ▶ 임산부: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 확인서)

② 임산부 업선제 지원

- 대상: 4주~12주 이하의 임신부
- 지원기간: 임신 12주까지
- 방법: 혈압, 체중 측정 후 임신부 본인이 직접 수령
- ※ 입원 등의 이유로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산모수첩 내 의사소견과 사인 지참 후 수령 가능

③ 임신 철분제 지원

- 대상: 20주 이상의 임산부
- 지원기간: 임신 20주~출산 후 1개월까지(최대 6개월 지원, 3갑씩 2회 분할 지원)
- 방법: 혈압, 체중 측정 후 임신부 본인이 직접 수령
- ※ 입원 등의 이유로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산모수첩 내 의사소견과 사인 지참 후 수령 가능

④ 트리플검사 쿠폰 지급

- 산모의 혈액 속 AFP, HCG, UE3의 농도를 검사함으로써 태아의 신경관 결손증이나 염색체 이상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아내기 위한 2차 기형아 검사
- 검사시기: 임신 15주~20주
- 쿠폰발급대상: 트리플검사 시행 전의 임신부
- 검사기관: 봄빛병원, 산본제일병원, 생여성병원, 은하산부인과, 이경숙산부인과, 필산부인과, 이정은산부인과, 전희숙산부인과
- 검사방법: 혈청 내 태반호르몬 수치 검사(혈액검사), AFP(태아당단백질), UE3(에스트리올), 용모성선호르몬(HCG)
- 지원방법: 쿠폰 발급의 바우처 방식
- ※ 검사 전 미리 쿠폰을 받아 병원에 제출한 경우에만 검사비 지원, 쿠폰을 받기 전 이미 검사한 경우에는 소급해 지원하지 않음

⑤ 임신 축하금 지원

- 대상: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시민 중 임신 20주에서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임신부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분만 후 신청 불가)

⑥ 임산부 건강교실

- 대상: 20주 이상의 임산부 약 30명
- 일시: 3월~10월
- 장소: 보건소 보건교육실
- 내용: 순산 체조, 라마즈 호흡법, 모유 수유, 유방 관리, 신생아 관리, 임산부 영양 등

⑦ 직장인 임산부의 날 운영

- 운영일시: 매달 넷째주 토요일 오전 9~12시
- 처리업무: 업선제: 철분제 지원, 산전검사, 트리플 쿠폰 발급, 임신 축하금 신청

※ 기저귀, 산후도우미, 난임, 미숙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의 업무는 정부 전산시스템의 상호연계 지원(전송 및 바우처 처리)이 되지 않아 평일에만 가능

단신뉴스

'건강일터' 늘려가는 보건소 제2호 '건강일터 만들기' 협약

군포시보건소가 보건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지역 내 30~50대 직장인들의 건강생활을 위해 '건강일터'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건소는 최근 군포2동 소재 강남제비스코 공장과 '건강일터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군포시시설관리공단과의 협약 이후 2번째다.

보건소의 건강일터 만들기 사업은 바쁜 직장생활로 건강관리가 어렵고, 하루 중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보건기관 이용에도 어려움이 많은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관리사업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7월부터 협약을 맺은 사업체와 함께 직장인들에게 다양한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협약 사업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행태와 요구도 조사, 조사결과를 반영한 분기별 전 직원 건강교육,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대사증후군 검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 상담, 그룹별 건강교육성, 직장 내 건강환경 조성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사업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건강일터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산본보건지소 390-8924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 안내

• 일시: 매주 월/금 10:00~11:20, 14:00~15:20

7월 22일(토) 10:00~11:20

• 대상: 군포시민 누구나

• 장소: 산본보건지소 3층 대교육실

• 신청: 선착순 전화

•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61, 8978

고혈압 건강교실

• 대상: 군포시민 약 30명

• 시간: 7월 매주 수요일 10:00~11:00

• 장소: 산본보건지소 3층 교육실

• 내용: 고혈압 영양 및 질환 관리 등

• 신청: 예약제 운영(전화 및 방문)

•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51

당뇨병 건강교실

• 대상: 군포시민 약 30명

• 시간: 7월 매주 금요일 10:00~11:00

• 장소: 산본보건지소 3층 교육실

• 내용: 당뇨병 영양 및 질환 관리 등

• 신청: 예약제 운영(전화 및 방문)

•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51





열정으로 만드는 화음

군포남성합창단



어찌 보면 합창은 작은 사회와 같다. 각자 자신이 맡은 파트가 정해져 있고, 여러 파트가 모여 아름다운 전체 화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합창'이라는 공통분모로 모여 열정을 다하는 '군포남성합창단'을 만나보자.

글 김은사 친 주효상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군포생동감'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호회 및 시민은 군포문화재단(031-390-3071~3)에 문의하면 된다.



함께 모여 합창음악에 취하다

2015년 5월 창단한 군포남성합창단은 군포 유일의 아마추어 남성합창단이다. 장석기(전 군포예총 회장) 단장을 중심으로 25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군포남성합창단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청소년수련관 3층 음악실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낸다.

단원의 연령층은 20대부터 70대까지 폭넓다. 자영업자, 회사원, 농부 등 직업군도 다양한데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군포'라는 지역과 '음악에 대한 열정'이다. 종교와 이념을 떠나 오로지 합창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모여 아름답고 장중한 화음을 만들어낸다.

현재 합창단은 올해 9월 27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2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새로운 합창곡 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단 2년 만에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크고 작은 연주회만 330여회 넘게 선보였다. 특히 환우를 위한 병원로비 음악회, 노인의 날 행사 출연 등 합창음악을 통한 봉사활동에도 애정을 쏟고 있다.

악보를 모르더라도 열정만 있다면 OK

군포남성합창단은 올해 목표를 더 많은 단원 확보로 삼았다. 좋은 활동에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공유하기 바라는 마음에서다.

장석기 단장은 "음치만 아니라면 대환영입니다. 오디션도 간단한 도례미파솔라시도 음역 테스트만 진행합니다"라며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군포남성합창단의 문은 늘 활짝 열려 있다고 강조한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바리톤 성악가인 우재기 지휘자 역시 "남을 위한 이해, 배려, 협력 등 신사의 덕목을 갖추신 분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고 싶습니다. 합창은 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잘 어울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열린 마음과 배려, 이것이 바로 클래식 음악에서부터 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합창음악으로 기쁨과 감동을 전하는 군포남성합창단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동호회 가입 문의 010-3729-2891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군포시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 평등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7월 1일(토)~7(금)
- 장소 시청 대회의실,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내용 기후·환경 홍보 및 체험 부스 운영(20여개) 등
 - 가정폭력·성매매 등 예방 특별강연 : 7. 3(월) 10:00, 시청 대회의실
 -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 7. 4(화) 14:00,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명사 초청강연 : 7. 4(화) 15:00,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홍보부스 운영 : 7. 4(화) 14:00,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로비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실 운영 : 7. 4(화) 14:00,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로비
- 주최 군포시 • 주관 군포시여성단체협의회
- 문의 여성기획과 390-0262

